강산무진도 江山無盡圖

이인문 李寅文 (1745~1821)

보물 제2029호
18세기, 비단에 수묵담채, 原43.9x856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8미터가 넘는 대작 <강산무진도>는 5개의 비단을 잇고 그 위에 장대한 사계절의 자연 풍광을 연속으로 표현하여 제목 그대로 끝이 없는 산과 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림 곳곳에는 농사, 여행, 장터, 배를 타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어 자연과 그 섭리 안에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담겨있다.

18세기 화원화가였던 이인문은 산수화에 탁월한 기량을 보여 조형적으로 완성도 높은 그림을 많이 남겼다. 작품의 양 끝에는 감상안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의 인장이 찍혀있어 그의 소장품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PosART Inkjet Print on PosMAC Steel
포스맥 강판에 포스아트 잉크젯 프린트, 평면인쇄

내연산삼용추도 內延山三龍湫圖

정선 鄭敾 (1676~1759)

18세기, 비단에 수묵담채, 原134.7x56.2cm
개인 소장

<내연산삼용추도>는 겸재 정선이 경상북도 내연산에 위치한 폭포를 그린 산수화이다. 정선은 18세기 전반 진경산수화로 우리나라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을 새로운 경지에 올린 인물이다. 그는 58세부터 60세까지 지금의 경북 포항에서 현감으로 재직했고, 그곳에서 4km 가량 떨어진 내연산을 방문하여 아름다운 폭포를 화폭에 담아냈다.

PosART Inkjet Print on PosMAC Steel
포스맥 강판에 포스아트 잉크젯 프린트, 적층인쇄

안전소견 眼前所見

정선 鄭敾 (1676~1759)

1732, 종이에 수묵, 原23x59cm
개인 소장

<안전소견>은 정선이 50대 중반부터 말년을 보낸 인곡정사(仁谷精舍 · 종로구 옥인동 20번지 일대 추정)를 그린 '부채그림'이다. 밝은 달 아래 나무와 마당의 국화 등을 통해 가을의 정취를 가득 전하고 있으며, 국화가 추위에 시들지 않도록 바람막이를 설치한 것을 볼 수 있다. 부채라는 작은 공간 속에 담담하지만 생동감 넘치는 자연과 일상을 그린 정선의 탁월한 감성이 돋보인다.

PosART Inkjet Print on PosMAC Steel
포스맥 강판에 포스아트 잉크젯 프린트, 적층인쇄

매화초옥도 梅花草屋圖

전기 田琦 (1825~1854)

19세기 중엽, 종이에 수묵담채, 原32.4x36.1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람古藍 전기田琦는 추사 김정희의 제자로 3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화가이다. 그림에는 매화가 만발한 산 속 작은 집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친구를 기다리는 선비와 다리를 건너 친구를 만나러 가는 선비 2명의 따뜻한 우정이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은 산 속 작은 집의 주인이자 친구인 오경석과 그를 찾아가는 전기 자신을 표현한 것이다. 친구인 오경석에게 선물한 아담한 소품이지만 참신한 화풍의 명작으로 여겨진다.

PosART Inkjet Print on PosMAC Steel
포스맥 강판에 포스아트 잉크젯 프린트, 적층인쇄

몽유도원도 夢遊桃源圖

안견 安堅 (생몰년 미상)

1447, 비단에 수묵담채, 原38.7x106.5cm
일본 덴리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몽유도원도>는 1447년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 이용이 '도원을 노니는 꿈'을 꾼 뒤 안견에게 그림으로 그리게 해 나온 작품이다. 안견은 이 그림을 3일 만에 완성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안평대군이 쓴 발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작품은 왼쪽 현실 세계에서 출발하여 중앙의 험한 절벽과 강물을 지나 오른쪽 복숭아꽃이 만발한 무릉도원에 도달하는 여정이 묘사되어 있다. 높은 곳에서 비스듬히 아래를 내려다보는 부감법을 사용해 안평대군의 관념적이고 몽환적인 꿈을 원숙하게 묘사한 명작이다.

PosART Inkjet Print on PosMAC Steel
포스맥 강판에 포스아트 잉크젯 프린트, 적층인쇄

금강전도 金剛全圖

정선 鄭敾 (1676~1759)

18세기, 비단에 수묵담채, 原28.1x33.7cm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정선은 조선 후기 금강산 그림의 신기원을 마련한 인물이다. <금강전도>는 정선이 59세에 그린 명작으로 마치 항공 촬영을 한 듯 부감법으로 일만 이천 봉우리를 장대하게 펼쳐냈다. 그림 왼쪽에는 흙이 덮인 토산이, 오른쪽에는 날카로운 바위산이 그려져 있어 부드러움과 강함이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보는 이를 압도하는 드라마틱한 화면 구성은 겸재 정선의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준다.

PosART Inkjet Print on PosMAC Steel
포스맥 강판에 포스아트 잉크젯 프린트, 적층인쇄

인왕제색도 仁王霽色圖

정선 鄭敾 (1676~1759)

국보 제216호
1751, 종이에 수묵담채, 原79.2x138.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겸재 정선은 70대 중반의 노령에도 붓을 놓지 않았다. 1751년 76세에 그린 <인왕제색도>는 인왕산의 준수한 봉우리가 비안개가 걷힌 뒤 환히 드러나는 모습을 장쾌하게 표현하였다. 강렬한 흑백 대비의 박진감 넘치는 구성은 명작을 넘어 겸재 예술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이 그림은 정선과 평생을 가까이 지낸 친구 이병연이 병에 걸려 위중해지자 그의 집을 방문하여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PosART Inkjet Print on PosMAC Steel
포스맥 강판에 포스아트 잉크젯 프린트, 적층인쇄

이채초상 李采肖像

작자미상

보물 제1483호
1802, 비단에 채색, 原98.4x56.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 이채(李采, 1745~1820)의 반신 초상화이다. 정면을 당당하게 응시하고 있는 형형한 눈빛이 동공, 홍채까지 섬세하게 묘사되었으며, 검버섯, 콧등의 상처도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당시 유학자들이 입던 심의深衣의 주름과 머리에 쓴 정자관程子冠의 묘사도 사실적이지만 특히 얼굴의 음영과 특징, 윤곽을 치밀하고 수려하게 표현해 조선 후기 초상화의 걸작으로 일컬어진다.

PosART Inkjet Print on PosMAC Steel
포스맥 강판에 포스아트 잉크젯 프린트, 적층인쇄

윤두서 자화상 尹斗緖 自畵像

윤두서 尹斗緖 (1668~1715)

국보 제240호
1710, 종이에 수묵, 原50x93.6cm
고산 윤선도전시관 관리

윤두서는 정선, 심사정과 더불어 조선의 3재로 불렸던 조선 후기 문인이자 화가이다. 이 그림은 그가 직접 그린 자신의 자화상으로, 원래 상반신까지 그려져 있었으나 목탄으로 그린 도포 부분은 퇴색되어 잘 보이지 않는다. 한 올 한 올 힘차게 처리된 수염과 꽉 다문 입술이 강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얼굴의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 눈두덩과 양 볼의 윤곽에 약간 붉은 채색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림을 보는 사람과 대결하듯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생생한 눈동자의 표현이 특징이다.

PosART Inkjet Print on PosMAC Steel
포스맥 강판에 포스아트 잉크젯 프린트, 적층인쇄

서당 書堂

김홍도 金弘道 (1745~미상)

보물 제527호《단원 풍속도첩 檀園風俗圖帖》
18세기, 종이에 수묵담채, 原26.9x22.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김홍도는 풍속화를 통해 서민들의 희노애락과 생명력을 전했다. 작품 <서당>은 쪼그리고 돌아앉아 훌쩍이는 학생과 훈장을 그림 가운데에 두고 익살스러운 표정의 학생들을 주위에 둥글게 배치하였다. 서러움이 완연한 학생과 장난스러운 주변 인물들의 표정에 절로 웃음이 나며, 구도, 인물 묘사, 서사적 구성 모두 탁월한 명작이다.

PosART Inkjet Print on PosMAC Steel
포스맥 강판에 포스아트 잉크젯 프린트, 적층인쇄

상박 相撲 / 씨름

김홍도 金弘道 (1745~미상)

보물 제527호《단원 풍속도첩 檀園風俗圖帖》
18세기, 종이에 수묵담채, 原26.9x22.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단원 김홍도는 중인 집안 출신으로 20대부터 50대까지 궁중 화원으로 활약했다. 《단원 풍속도첩》은 김홍도가 여행하며 만난 농촌의 풍속을 주제로 한다. <씨름>은 가운데 공간에 힘을 겨루는 씨름꾼을 그려 넣어 그림의 중심을 잡고 화면 위 아래로 두 무리의 구경꾼들을 둥글게 배치해 열띤 좌중의 분위기를 살렸다.

그의 그림은 배경을 모두 생략한 박진감 넘치는 구도에 인물 표정이 뚜렷하여 각 장면의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는데, 이러한 그림들은 서민의 삶과 정서에 밀착되지 않고는 그릴 수 없는 것들이라 진정한 의미의 서민 화가라 평가받는다.

PosART Inkjet Print on PosMAC Steel
포스맥 강판에 포스아트 잉크젯 프린트, 적층인쇄

무동 舞童 / 춤추는 아이

김홍도 金弘道 (1745~미상)

보물 제527호《단원 풍속도첩 檀園風俗圖帖》
18세기, 종이에 수묵담채, 原26.8x22.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춤추는 아이(무동)>는저잣거리에서 한 소년이 악단의 흥겨운 가락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두 팔의 한삼자락을 오른쪽으로 감고 발을 번쩍 들어 도약하는 모습으로 춤추는 아이의 흥을 나타내었으며, 악사들의 풍악과 아이의 웃음으로 신명과 함께 춤의 절정을 묘사하였다.

PosART Inkjet Print on PosMAC Steel
포스맥 강판에 포스아트 잉크젯 프린트, 평면인쇄

전모를 쓴 여인

신윤복 申潤福 (1758~1813 이후 추정)

《여속도첩 女俗圖帖》
1805년경, 비단에 채색, 原24.5x19.1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어려보이는 얼굴을 한 기녀가 어딘가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전모는 주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쓰던 우산대용의 모자로, 멋을 좋아하던 당시 기녀들이 나들이용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둥글고 흰 얼굴에 가느다란 눈매, 붉고 작은 입술을 하고 있어 당대 미인의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PosART Inkjet Print on PosMAC Steel
포스맥 강판에 포스아트 잉크젯 프린트, 적층인쇄

저잣길

신윤복 申潤福 (1758~1813 이후 추정)

《여속도첩 女俗圖帖》
1805년경, 비단에 채색, 原29.7x28.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배경을 생략하고 인물을 부각하여 그린《여속도첩》속 신윤복의 작품들은 조선 여인들의 삶을 진솔하게 표현한다. 그 중에서도 <저잣길>은 시장에서 장보는 여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였다. 빨간 함지박 속 치솟은 생선 꼬리에서 생동감이 느껴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으나 이미 다른 곳을 향하는 발걸음에서 신윤복의 재능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PosART Inkjet Print on PosMAC Steel
포스맥 강판에 포스아트 잉크젯 프린트, 적층인쇄

연당의 여인

신윤복 申潤福 (1758~1813 이후 추정)

《여속도첩 女俗圖帖》
1805년경, 비단에 채색, 原31.4x29.6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연당의 여인>은 생황이라는 악기와 긴 담뱃대를 들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다. 그림의 주인공은 커다란 가체와 몸에 꼭 붙는 짧은 저고리 등을 통해 기녀로 추정되며, 고개를 돌려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툇마루 위에 앉은 여성은 작게 그려져 있으나 화면 하단에 탐스럽게 자란 수련을 그려 넣어 한가로운 정취를 표현하였다.

PosART Inkjet Print on PosMAC Steel
포스맥 강판에 포스아트 잉크젯 프린트, 적층인쇄

단오풍정 端午風情

신윤복 申潤福 (1758~1813 이후 추정)

국보 135호《혜원전신첩 惠園傳神帖》
19세기 초, 종이에 채색, 原28.2x35.6cm
간송미술관 소장

신윤복은 여가를 즐기는 여성들의 활달한 모습을 화폭에 자주 담았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단오풍정>은 단옷날의 생활풍속으로, 그네 뛰는 여인이 관람자의 시선을 압도한다. 개울가에서 이루어지는 여인들의 몸단장을 왼편 상단 동자승 두 명이 훔쳐보고 있어 그림에 해학미를 더했다.

PosART Inkjet Print on PosMAC Steel
포스맥 강판에 포스아트 잉크젯 프린트, 적층인쇄

대장간

김홍도 金弘道 (1745~미상)

보물 제527호《단원 풍속도첩 檀園風俗圖帖》
18세기, 종이에 수묵담채, 原26.9x22.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 그림은 대장간의 노동 장면이 표현된 풍속화이다. 달군 쇠를 모루 위에 대주는 사람, 이를 쇠망치로 내리치는 사람, 다 된 연장을 숫돌에 갈고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 나이 어린 견습생은 풀무에 바람을 넣으며 줄을 잡아당기고 있다. 이들의 솟아오른 근육과 흐르는 땀방울은 힘들지만 활기찬 노동의 순간을 전달해 준다.

PosART Inkjet Print on PosMAC Steel
포스맥 강판에 포스아트 잉크젯 프린트, 적층인쇄

미인도 美人圖

신윤복 申潤福 (1758~1813 이후 추정)

보물 제1973호
19세기 초, 비단에 채색, 原114x45.5cm
간송미술관 소장

혜원 신윤복은 주로 한양의 도시 유흥을 세련된 화풍으로 담아냈는데 그 중에서도 여인의 인체 묘사에 탁월한 기량을 지녔다.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미인도>에는 맵시 있고 단아한 여인이 배경 없이 홀로 서 있다.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이지만 저고리 및 허리끈의 진한 채색과 노리개를 쥐고 있는 동작으로 그림에 생동감을 부여했다. <미인도>는 사당에 봉안되던 일반적인 초상화와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조선 여인의 사실성을 담은 최초의 미인도이다. 여인의 전신상 또한 신윤복 이전에는 남아있는 예가 없으며 이후 19세기부터 이러한 여인 초상이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독보적 가치를 지닌다.

PosART Inkjet Print on PosMAC Steel
포스맥 강판에 포스아트 잉크젯 프린트, 적층인쇄

타작 打作 / 벼타작

김홍도 金弘道 (1745~미상)

보물 제527호《단원 풍속도첩 檀園風俗圖帖》
18세기, 종이에 수묵담채, 原28x23.9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벼타작>은 열심히 일하는 일꾼과 거드름피우는 마름을 대조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신분적 갈등과 대립 관계에 위치한 사람들을 한 장면에 그렸으나 서구의 사실주의 회화와 달리 현실 부정이나 격렬한 대립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저 자연스러운 감정의 대조를 통해 엮은 풍자만이 그림에 남아있는데, 이는 중용의 경지에 오른 김홍도가 대단히 세련된 방식으로 그의 해학을 풀어냈음을 알 수 있다.

PosART Inkjet Print on PosMAC Steel
포스맥 강판에 포스아트 잉크젯 프린트, 적층인쇄

화접도 花蝶圖

심사정 沈師正 (1707~1769)

1765년, 종이에 채색, 原22.4x18.3cm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심사정은 일찍부터 겸재 정선의 아래에서 그림을 공부하여 김홍도와 함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화가가 되었다. 그는 다방면의 그림에 재능을 보였으나 그 중에서도 화훼화와 초충도, 영모도에 뛰어난 실력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화접도>는 모란꽃과 나비를 그린 그림으로 심사정의 섬세한 감각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나비와 꽃의 입체적인 표현을 볼 수 있으며 커다란 모란잎의 잎맥이 정교히 그려져 있다.

PosART Inkjet Print on PosMAC Steel
포스맥 강판에 포스아트 잉크젯 프린트, 적층인쇄

장미호접 薔薇胡蝶

심사정 沈師正 (1707~1769)

1765년, 종이에 채색, 原18.8x16cm
간송미술관 소장

<장미호접>은 화사한 장미꽃과 나비를 주제로 한 작품이다. 꽃잎의 풍성함과 나비의 섬세한 날갯짓이 표현되어 있는데, 따뜻한 색감과 세밀한 묘사가 자연의 생동감을 돋보이게 한다. 꽃과 나비의 조화는 자연의 균형과 조화를 상징하며, 조선 후기 문인들, 특히 심사정의 자연에 대한 애정과 감수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 작품이다.

PosART Inkjet Print on PosMAC Steel
포스맥 강판에 포스아트 잉크젯 프린트, 적층인쇄

맹호도 猛虎圖

작자미상

18세기, 종이에 수묵, 原96x56.1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예부터 한반도에서 호랑이는 나쁜 기운과 재해를 막아주는 동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새해가 시작되면 궁궐이나 집 대문에 호랑이 그림을 붙여 한 해 동안 나쁜 일 없이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했다. 등과 꼬리를 곧추세우고 눈을 부릅뜬 호랑이의 얼굴에서 강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으며, 물결치는 것 같은 무늬의 흐름에서 치밀한 묘사를 발견할 수 있다.

PosART Inkjet Print on PosMAC Steel
포스맥 강판에 포스아트 잉크젯 프린트, 적층인쇄

화조구자도 花鳥拘子圖

이암 李巖 (1499~미상)

보물 1392호
16세기 초, 종이에 채색, 原86x44.9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물을 그린 영모화翎毛畵에 뛰어났다고 전해지는 이암은 세종의 넷째 아들인 임영대군의 증손으로 왕실 신분의 화가이다. 이 작품은 꽃나무를 배경으로 하여 세 마리 강아지가 천진하고 한가롭게 놀고 있는 장면을 그렸다. 전체적으로 소재와 구성요소들이 매우 자연스럽고 조화로워 따스한 봄날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저절로 전달되며, 조선시대 초기 한국적 화풍을 뚜렷이 보여준다.

PosART Inkjet Print on PosMAC Steel
포스맥 강판에 포스아트 잉크젯 프린트, 적층인쇄

모견도 母犬圖 / 어미 개와 강아지

이암 李巖 (1499~미상)

16세기 초, 종이에 수묵담채, 原73.2x42.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나무 아래 어미 개와 강아지가 쉬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어미 개의 등 위에 엎드려 곤히 잠들어 있는 얼룩강아지, 어미 품에 파고드는 까만 강아지, 젖을 달라고 조르는 흰색 강아지가 귀엽게 묘사되어 있다. 편안한 어미 개와 강아지들에게서 따뜻한 정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이암이 동물에게 가졌던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이암은 이처럼 한국적인 정취를 자아내는 영모화에 뛰어났다. 그의 한국적인 동물화풍은 후기 변상벽의 <고양이> 그림으로 전통이 이어지며, 일본까지 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PosART Inkjet Print on PosMAC Steel
포스맥 강판에 포스아트 잉크젯 프린트, 적층인쇄

모계영자도 母鷄領子圖

변상벽 卞相璧 (1730~미상)

18세기, 비단에 수묵담채, 原94.4x44.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8세기의 화원 화가 변상벽은 닭과 고양이를 매우 잘 그려 변고양이卞猫, 변계卞鷄라는 별명이 있었다. 이러한 별명처럼 그림 속의 닭과 병아리는 마치 살아있는 듯 폭신하고 부드럽게 그려졌다. 벌을 물어 새끼에게 주려 하는 어미닭과 사발 위에 올라가 물을 마시는 병아리, 지렁이를 물고 서로 당기는 병아리 등 이 보송한 털을 가진 열네 마리의 병아리를 보면 그의 관찰이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PosART Inkjet Print on PosMAC Steel
포스맥 강판에 포스아트 잉크젯 프린트, 적층인쇄

묵죽도 墨竹圖

김홍도 金弘道 (1745~미상)

18세기 말, 종이에 수묵, 原23x27.4cm
간송미술관 소장

단원 김홍도의 만년에 제작된 희귀한 묵죽도로, 대나무의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바람처럼 스쳐가는 느낌으로 그려낸 자유로운 수묵화이다. 줄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려 쳤지만 위로 갈수록 먹빛이 진해지는 역발상의 농담 처리가 돋보이며, 잎사귀는 빠른 붓놀림으로 순식간에 휘갈겨져 생동감을 자아낸다. 끝이 엉키고 뒤섞이는 순간조차 단원의 노련한 필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 작품은, 절제된 기교와 내면의 격정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김홍도의 풍속화 외에도 수묵화의 세계에서도 그 예술적 깊이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이다.

PosART Inkjet Print on PosMAC Steel
포스맥 강판에 포스아트 잉크젯 프린트, 평면인쇄

매화서옥도 梅花書屋圖

조희룡 趙熙龍 (1789~1866)

18세기, 비단에 수묵담채, 原94.4x44.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 후기 화가 조희룡이 그린 산수화로, '매화가 흩날리는 숲 속 책이 가득한 집'이라는 뜻이다. 조희룡의 매화 사랑은 유별났는데, 매화 시가 새겨 있는 벼루와 먹을 사용했고 자신이 그린 매화 병풍을 두르고 앉아 매화에 관한 시를 읊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고 할 정도이다. 그림을 보면 한 남자가 집이 온통 매화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성에 차지 않는지 바로 눈앞 도자기에 매화 가지를 꽂아두고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 이 매화를 바라보고 있는 남자는 바로 조희룡 자신이다.

PosART Inkjet Print on PosMAC Steel
포스맥 강판에 포스아트 잉크젯 프린트, 적층인쇄

세한도 歲寒圖

김정희 金正喜 (1786~1856)

국보 제180호
1844, 종이에 수묵, 原104.1x2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추사 김정희는 경주 김씨 명문가 출신으로, 박제가에게 학문을 배우고 아버지를 따라 북경에서 많은 문인과 교류하며 견문을 넓혔다. 그러나 조정의 권력 싸움에 휘말려 여러 번 유배를 겪게 되는데, <세한도>는 그가 제주도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려진 그림이다. <세한도>는 추사의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으로, 아주 간결하고 조촐하게 그려진 그림이다. 제주도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 그의 제자이자 통역관이었던 이상적李尙迪이 변함없는 사제간의 정으로 해마다 북경에서 책을 구해 보내주자 이에 감동하여 그림을 그려주었다는 애틋한 사연이 담겨 있다.

PosART Inkjet Print on PosMAC Steel
포스맥 강판에 포스아트 잉크젯 프린트, 적층인쇄

월매도 月梅圖 / 달밤에 핀 매화

어몽룡 魚夢龍 (1566~1617)

16세기말~17세기초, 비단에 수묵담채, 原119x53.6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 중기 선비화가인 어몽룡은 채색을 사용하지 않고 먹으로 그리는 매화 그림을 잘 그렸다. <달밤에 핀 매화>에서는 말라버린 고목에서도 끈질긴 생명을 보여주며 수직으로 뻗어 꽃을 피운 매화와 그 뒤편에서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다. 이 그림은 5만원권 지폐 뒷면에도 실려 있다.

PosART Inkjet Print on PosMAC Steel
포스맥 강판에 포스아트 잉크젯 프린트, 적층인쇄

묵모란도 墨牡丹圖

심사정 沈師正 (1707~1769)

1767, 종이에 수묵, 原136.4x58.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목련, 모란, 난초, 괴석, 새를 종이에 먹으로만 표현한 그림으로, 그림 오른쪽 상단에는 '정해년(1767) 겨울, 먹으로 즐기노라墨戱'라고 쓰여 있어 작가 심사정이 나이 61세 겨울에 그린 것을 알 수 있다. 심사정은 문인 출신으로 봄에 피는 화사한 목련과 모란을 절제된 솜씨로 그려냈다. 목련은 꽃봉오리가 임금이 계신 북쪽을 향해 피기 때문에 군자의 도리를 다하는 꽃으로 여겨졌다. 동시에 그림 중간에 큼직하게 핀 모란은 먹으로 그려졌으나 마치 붉게 타오르는 것처럼 표현되어 작가의 먹 쓰는 솜씨가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PosART Inkjet Print on PosMAC Steel
포스맥 강판에 포스아트 잉크젯 프린트, 적층인쇄

책거리도

작가미상

19세기 추정, 종이에 채색, 原53.5x28.1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8세기 정조 때부터 널리 퍼진 것으로 추정되는 책장 그림으로, 특히 정조는 책을 몹시 좋아해 왕이 앉는 자리 뒤에 일월오봉도一月五峯圖를 대신하여 책거리도 병풍을 놓을 정도였다고 한다. 초기 책거리도는 책만이 가득 찬 형태였으나 이후 화원에 의해 민화로 널리 퍼지며 점차 자신이 갖고 싶은 문방구와 물건들이 가득 그려지게 되었다. 이처럼 귀한 물건과 식물 등을 그리게 되면서 점차 출세와 행복을 염원하는 그림으로 변모하였다.

PosART Inkjet Print on PosMAC Steel
포스맥 강판에 포스아트 잉크젯 프린트, 평면인쇄